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옹립

Attack on the Pos k-chong by the Later Paekche army and the Enthroning of the King Kyngsun.

저자 (Authors)	권영오 Kwon, Young-oh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13 , 2013.4, 175-224(50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3 , 2013.4, 175-224(5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85136
APA Style	권영오 (2013).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옹립. 한국고대사탐구, 13, 175-22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5 14:2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올립

권 영 오*

- I. 머리말
- II.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
- III.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
- IV. 후백제군의 경순왕 올립
- V. 맺음말

【국문초록】

수세적 방어에 있던 고려는 927년 1월 용주를 공격하면서 공세로 나서기 시작하여, 3월에는 근암성을 함락하고 7월에는 대야성을 격파하였다. 이에 후백제도 반격에 나서 9월에 근암성을 재탈환하고 고을부를 쳐들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927년 11월 경애왕은 “탑을 세운 뒤에 八關을 열고 죄인을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호국행사를 위해 비빈과 종척, 신료들을 이끌고 포석정에 행차하였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출신으로 왕경에 종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경 주변의 군사 시설과 지리에 익숙하였다. 또한 연례적으로 거행한 세시명절이었기에 이때 왕의 일정은 거의 공개되어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후백제군은 신속한 군사작전으로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다.

포석정 사건은 후백제군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진행되었고, 견훤은 이미 경애왕을 제거하고 김부를 올립할 계획을 가지고 신라 왕경을 점령하였다. 견훤에 의해 올립되었고, 수많은 인질이 후백제에 끌려간 상황에서도 경순왕의 대외정책은 후삼국의 정세에 따라 변화하였다. 때문에 신라를 병합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견훤이나 왕건 모두 인질을 잡고 군사적 압박을 통해 신라를 병합하려 하였다.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를 도덕적 타락으로 폄하하거나 이를 신라 멸망의 원인으로 비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을 약탈과 견훤의

* 대저중학교 교사

성격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후백제의 건국 기반과 지지세력의 이해를 정치적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주제어 : 후백제, 경애왕, 경순왕, 견훤, 왕건, 포석정

I. 머리말

경애왕 4년(927) 11월(이하 본문의 연월은 모두 음력임) 후백제군은 신라 왕경에 있는 포석정을 기습하였다(이하 포석정 사건이라 함). 신라의 종척과 공경대부들은 땅에 엎드려 기면서 노복이 되어도 좋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하였으나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며, 경애왕은 포로가 되어 사실상 피살되었고, 왕비가 옥을 당하였다.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은 천년 왕국 신라의 실질적 종말을 가져온 사건이었지만,¹⁾ 문헌에 따라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포석정 사건에 대한 의문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경애왕이 포석정에 행차한 이유이다. 기록에는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놀다가 적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추운 한 겨울에 연회를 위해 포석정에 행차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후백제군이 신라 왕경의 포석정에 쳐들어 올 때까지 신라군이 알지 못하고 왕이 포로로 잡힐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때문에 신라 내부에 후백제 내통 세력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견훤이 경순왕을 옹립하

1) 전기웅은 신라는 박씨왕가기를 지나며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애왕의 살해는 실질적인 신라의 멸망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2010, 227쪽).

고 신라 왕경에서 철군한 이유이다. 후백제군에 의해 추대된 경순왕이 935년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라를 고려에 병합시켰기 때문이다.

포석정 사건을 경애왕에 대한 도덕적 포폄이나 견훤의 잔인한 성격 탓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포석정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적 해석을 위해 필자는 급습과 약탈의 사건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확대된 時, 空間의 배경에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본고에서는 시간적으로 927년 1월의 고려의 용주 공격에서부터, 공간적으로는 경북 북부 일대를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와의 군사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당시 정치 상황을 검토하면서, 앞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

본고에서 포석정 사건에 대한 1차 사료로 검토할 대상은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애왕 4년, 『삼국사기』 권50 열전 견훤, 『삼국유사』 권2 기이 김부대왕, 『삼국유사』 권2 기이 후백제 견훤, 『고려사』 권1 태조 10년 9월,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10년) 9월 조 기록이다.²⁾ 이들 기록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서로의 내용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먼저 『삼국사기』의 내용을 살펴 보자. 포석정 사건은 각 사서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료 고증을 위해 다소 길지만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 그 외 각종 문집에 산견되거나 후대 사서에 기록된 것은 본고의 필요에 따라 언급할 것이다.

A-① 가을 9월에 견훤은 고을부에서 아군을 공격하였으므로 왕은 태조에게 구원을 청했다. 태조는 장수에게 영을 내려 勤兵 1만명을 내어 가서 구원하게 했다. 그러나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겨울 11월에 갑자기 王京에 쳐들어 갔다.

왕은 妃嬪, 宗戚들과 더불어 포석정에 놀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다가(遊鮑石亭宴娛) 적병이 오는 것도 몰라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왕비와 함께 後宮으로 달려 들어가고 종척과 公卿大夫와 士女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달이나 숨었다. 적에게 사로잡힌 자는 귀하고 천함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놀라고 겁을 내어 땅에 엎드려 기면서 노복이 되기를 애걸하였지만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 견훤은 또 그의 군사를 놓아 公私의 재물을 거의 다 약탈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거처하면서 좌우 사람들에게 명하여 왕을 찾도록 하였다. 왕은 비첩 몇 사람과 후궁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軍中으로 끌려 왔다. 왕을 핍박하여 자살하도록 하고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부하들을 놓아 왕의 비첩들을 욕보였다. 그리고는 왕의 族弟를 세워 임시로 나라 일을 맡게 하였으니, 이가 경순왕이다(『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A-② 天城 2년(927) 가을 9월에 견훤은 近品城을 공격하여 이를 불살랐다. 나아가 신라의 고을부를 습격하고 신라의 서울 부근까지 닥치니, 신라왕은 태조에게 구원을 청했다. 겨울 10월에 태조가 군사를 내어 구원하려 했는데, 견훤이 갑자기 신라 王都로 쳐들어갔다.

이때 왕은 夫人, 嬪御와 함께 포석정에 나와 놀며 술자리를 베풀고 즐기다가(出遊鮑石亭 置酒娛樂) 적군이 이르니, 낭패를 당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부인과 함께 성 남쪽의 이궁으로 돌아갔는데, 여러 侍從臣寮(僚)와 宮女, 伶官들은 모두 난병에게 붙잡혔다. 견훤이 군사를 놓아 크게 약탈하고, 사람을 시켜 왕을 잡아와서 그 앞에 이르자 왕을 죽이고, 곧 궁중으로 들어가서 왕의 부인을 끌어내어 능욕하였다.

왕의 族弟 金傅로 왕위를 잇게 하고는,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英景을 사로잡고, 또 나라 창고에 있는 진귀한 보물과 무기를 취하고 子女와 각종 工人의 우수한 이도 따르게 하여 돌아왔다(『삼국

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삼국사기』 경애왕 본기와 『삼국사기』 견훤 열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왕을 수행한 사람이나 장소 등에 대한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莢景을 사로잡고, 또 나라 창고에 있는 진귀한 보물과 무기를 취하고 子女와 백공 중 기예가 뛰어난 자 등을 따르게 하여 돌아왔다”라는 내용은 『삼국사기』 경애왕 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삼국유사』의 것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거의 축약하여 옮겨 신는 정도이다.

B-① 天咸 2년 정해 9월에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침범해서 고을부에 이르자 경애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청했다.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勁兵 1만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는데, 구원병이 미처 이르기도 전에 견훤은 그해 겨울인 11월에 王京을 습격하였다. 이때 왕은 妃嬪, 宗戚들과 포석정에 놀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다가(遊鮑石亭 宴娛) 적병이 오는 것도 몰라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왕비와 함께 後宮으로 들어가고, 宗戚 및 公卿大夫와 士女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다가 적에 사로잡혀 귀하고 천한 신분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땅에 엎드려 기면서 노비가 되기를 애걸했다. 견훤은 군사를 놓아 공사의 재물을 약탈하고 王宮에 들어가 거처했다. 이에 좌우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왕을 찾게 했더니 왕은 妃妾 몇 사람과 함께 후궁에 숨어 있었다. 軍中으로 잡아다 왕을 강제로 자결하게 하고 왕비를 강간했다. 그리고 부하를 놓아 왕의 嬪妾들을 육보였다(『삼국유사』 권2, 金傅大王).

B-② 견훤은 고을부(원주: 지금의 蔚州라고 하나, 아니다)를 습격하여 취하고 始林(원주: 鷄林의 서쪽 교외라고도 한다)으로 진군하여 갑자기 신라 왕도에 쳐들어 갔다.

마침 신라의 왕이 夫人과 더불어 포석정에 나가 놀 때(出遊鮑石亭時)라 이로 말미암아 낭패막심이었다. 견훤은 왕의 부인을 끌어

다 강제로 욱보이고, 族弟 金傅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英景을 사로잡고, 또 나라 창고에 있는 진귀한 보물과 무기를 취하고 子女와 각종 工人의 우수한 이도 따르게 하여 돌아왔다(『삼국유사』권2, 후백제 견훤).

『삼국유사』에서 포석정 사건은 경애왕 조가 아니라 김부대왕 조에 기록(B-①)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경애왕 본기(A-①)의 내용을 거의 전제하고 있다.³⁾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B-②)의 기록은 『삼국사기』 견훤 열전(A-②)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고을부에 ‘今蔚州 非也’라고 하거나, 始林에 ‘一云 鷄林西郊’라고 주를 붙인 것은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내용을 첨입 및 보충하거나 『삼국사기』 뿐 아니라 다른 전적들도 참고했음을 보여준다.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타난 기록들을 살펴보자.

C-① 9월에 견훤이 近品城을 공격하여 불지르고 나아가 신라 고을부를 습격하였으며 신라 서울 가까이까지 육박하였다. 신라왕이 連式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侍中 公薑, 大相 孫幸, 正朝 聯珠 등에게 말하기를 “신라가 우리와 친선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신라가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공훤 등에게 兵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이들이 채 도착하기 전에 견훤이 신라 都城으로 갑자기 쳐들어 갔다.

신라왕은 妃嬪, 宗戚과 함께 鮑石亭에 나가 술을 차려 놓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出遊鮑石亭 置酒娛樂) 뜻밖에 적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夫人과 함께 달아

-
- 3) 『삼국유사』 김부대왕 말미의 史論도 『삼국사기』 경순왕 본기 말미의 것을 요약하여 옮겨 실고 있다.
- 4) 李康來는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 조는 『삼국사본전』을 주요 전거로 삼으면서 『이비(제)가기』와 『고기』가 보조 전거로 이용되었다고 하였다(『三國遺事』 ‘後百濟 甄萱’ 條의 再檢討,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264쪽).

나서 성 남쪽 이궁에 숨어 있었다. 從臣과 伶官, 궁녀들은 다 붙들렸다. 견훤은 군사들을 놓아서 약탈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신은 王宮에 들어가 거처하면서 좌우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찾아서 軍中에 두고 협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왕비를 강제로 육보였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嬪妾들을 난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라왕의 表弟 金傅를 왕으로 세우고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英景 등을 포로로 잡아 자녀들과 각종 工人들과 병기, 보배들을 모조리 가지고 돌아갔다(『고려사』권1, 태조 10년 9월).

- C-② 9월에 견훤이 근품성을 쳐서 이를 불사르고 나아가 신라의 고을부를 습격하고 서울 교외에 가까이 이르니, 신라왕이 連式을 보내어 급함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侍中公 萱, 大相 孫幸, 正朝 聯珠 등에게 이르기를 “신라가 우리와 和好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급함을 당하였으니 구원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고 공 萱 등을 보내어 兵 1만을 거느리고 가게 했는데, 미처 이르기 전에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신라 王都로 들어갔다.

이때 신라왕은 夫人과 嬪御, 宗戚과 함께 포석정에 나와 술자리를 베풀고 즐기다가(出遊鮑石亭 置酒娛樂) 뜻밖에 적병이 왔다는 말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줄 몰랐다. 왕과 부인은 성 남쪽의 이궁으로 달아나고 侍從臣僚와 宮女, 伶官들은 모두 함몰되었다. 견훤이 군사를 놓아 크게 약탈하고, 왕궁에 들어가 거처하였다. 좌우 사람들을 시켜 왕을 찾아내어 軍中 안에 두고 꺾박하여 자살하게 하고, 왕비를 강제로 육보였고, 그 부하를 놓아 嬪妾들을 난행하게 하였다.

왕의 表弟 金傅를 세워 왕으로 삼고 왕의 아우 孝廉과 宰臣 英景을 사로잡고, 자녀와 각종 工人과 무기, 보물을 모조리 가지고 돌아갔다(『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 9월).

『고려사』(C-①)와 『고려사절요』(C-②)의 기록도 『삼국사기』 견훤 열전(A-②)과 비슷하다. 그러나 신라 사신 連式, 시중 公萱, 대상 孫幸, 정조 聯珠 등 『삼국사기』에는 없는 구체적인 인명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사료를 바탕으로 포석정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검토해 보자.

『삼국사기』 경애왕 본기(A-①)와 『삼국유사』 김부대왕(B-②) 조에는 11월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삼국사기』 견훤 열전(A-②)에서는 10월, 『고려사』(C-①)와 『고려사절요』(C-②)에서는 9월 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인용하는 사료에 따라 각기 달리 언급하고 있지만,⁵⁾ 구체적인 날짜를 검토한 연구는 드물었다. 필자는 『삼국사기』 본기에 따라 포석정 사건이 11월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들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일괄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고려사』 태조 10년 9월 조 기사(사료 C-①)는 포석정 사건을 서술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어진다.

왕(왕건)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절을 시켜 조문과 제사를 치르게 하고 친히 精騎 5천을 거느리고 공산 동수에서 견훤을 맞아 큰 싸움을 진행하였는데 형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사태가 매우 위급하였다. 고려 대장 신승겸과 김락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희생되고 각 부대들은 패배를 당하였으며 왕은 겨우 몸만 피하였다. 견훤은 승리한 기세를 타서 대목군을 탈취하고 전야에 쌓인 곡식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고려사』권1, 태조10년 9월).

『고려사』의 태조10년(927년) 9월 조에 기록된 사건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9월에 후백제군이 근품성을 함락시키고 고을부로 쳐들어 왔다. 신라 경애왕은 고려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신을 보냈다. 이에 응해 왕건은 공훤 등에게 1만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후술하겠

5) 류영철(『고려의 후삼국통일과정연구』, 경인문화사, 2005, 95~96쪽)과 전기웅(앞의 책, 2010, 272~273쪽 각주 15)은 『고려사』의 기록을 신뢰하여 9월로, 鄭淸柱(『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일조각, 1996, 191쪽)와 文秀鎭(『王建의 高麗建國과 後三國統一』, 『국사관논총』35, 1992, 170~171쪽)은 10월로 언급하고 있으며, 文暉鉉(『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형설출판사, 1987, 59쪽)과 신희철(『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93, 110쪽)은 11월로 보고 있다.

지만 이 구원병은 실패하였고, 후백제군이 포석정을 습격하고 신라 왕경을 보름 정도 점령한 후 철군하였다. 구원군의 실패와 포석정 사건의 소식을 듣고 왕건이 직접 5천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후백제군과 공산 동수에서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그리고 후백제군은 승세를 타고 대목군을 탈취하고 들판의 곡식을 불사르고 돌아갔다.

이상의 사건들은 후백제군의 근품성 공격이 9월 초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9월 한달 동안에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그러므로 『고려사』 태조 10년 9월 조 기사들은 고려군의 패배를 축소시키기 위해 이때의 사건들을 9월 조에 묶어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10월에 출전한 고려 원군의 기록이 누락되었으며, 이어지는 『고려사』 태조 10년 10월과 11월 기사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D-① 겨울 10월에 견훤이 장수를 파견하여 우리 벽진군을 침략하고 大木, 小木 두 군의 곡식을 베어 갔다(『고려사』권1, 태조10년 10월).
 D-② 11월에 견훤이 벽진군의 稻穀을 불살랐으며 正朝 索湘이 여기서 전사하였다(『고려사』권1, 태조10년 11월).

『고려사』 태조 10년 9월 기록에 이미 견훤이 공산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타고 대목군의 곡식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燒盡)’고 하였다. 그런데 D-①에서 보면 10월에 후백제군이 대목군의 곡식을 베어가고 있다. 또한 927년 12월에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겨울(冬初)에 都頭 索湘이 星山の 진영에서 사로 잡혔고, 한달이 안되어(月內) 左將 金樂이 美理寺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다”⁶⁾라고 하여, 索湘이 후백제군에게 사로 잡힌 것이 冬初이며, 金樂이 전사한 공산 전투가 한달이 안되어(月內) 있었다고 하였다. 신라 사신의 파견과 고려 구원병의 출전, 포석정 사건 이

6)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열전; 『고려사』권1, 태조10년 12월

후 후백제군이 신라 왕정에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고려사』 태조 10년 9월의 기사는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공산 전투 후 철군하는 후백제군이 대목군의 곡식을 불사른 것도 D-②와 같이 벽진군의 곡식을 불사른 11월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⁷⁾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는 遊鮑石亭宴娛(A-① · B-①), 出遊鮑石亭 置酒娛樂(A-② · C-① · C-②)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하며 놀다가 후백제군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다.⁸⁾ 국왕 주재로 군신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곳으로 임해전이 있었다. 임해전에서의 연회는 3월과 9월에 열린 점에 주목하여 이를 정례화한 행사로 정착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⁹⁾ 『삼국유사』 四節遊宅 조에는 봄 東野宅, 여름 谷良宅, 가을 仇知宅, 겨울 加伊宅이라 하여,¹⁰⁾ 겨울에 왕이 遊하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후백제군이 신라의 서울 부근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왕이 비빈과 종척, 신료까지 대행하고 유희를 위해 포석정으로 행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¹¹⁾

포석정 행차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이때 국왕과 동행한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1 참고). 먼저 모든 기록에 妃가 보이고 있다. 왕비는 夫人으로도 표기되었다(A-②, B-②, C-②). 다음으로 嬪이 동행하고 있다.

-
- 7) 『삼국사기』에는 견훤이 大木郡에 침입하여 들판에 쌓아 놓은 곡식을 모두 불태운 것은 경순왕 원년 12월이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원년 12월).
 - 8) 김부식은 사론에서 “이때에 경애왕은 더구나 荒淫逸樂을 일삼아 궁인과 좌우 근신과 함께 포석정에 出遊하여 주연을 베풀고 즐겁게 놀다가 견훤의 襲來를 알지 못했으니, 이것이 ‘門外에 韓擒虎, 樓頭에 張麗華’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본기의 史論)라고 하였다.
 - 9) 이용현, 「안압지와 東宮 庖典」 『신라문화연구』1, 2007, 69쪽.
 - 10) 『삼국유사』 권1, 又四節遊宅
 - 11) 때문에 경애왕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의도적인 폄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신호철, 「후백제 견훤 왕의 역사적 평가와 그 의미」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20쪽).

빈은 B-②에서는 빠져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모두 보이며, 嬪御(C-②)로도 표기되었다.¹²⁾ 종척은 A-①, B-①, C-①, C-②에서 나타나며, 이들도 왕과 동행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공경대부(A-①, B-①)이다. 侍從臣僚(A-②, C-②)나 從臣(C-①)으로 표현된 인물들도 공경대부와 같은 종류일 것이다.

〈표 1〉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에 동행한 사람들

분류	출전	참석자
A-①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애왕 4년	왕, 妃, 嬪, 宗戚, 公卿大夫, 士女
A-②	『삼국사기』 열전 견훤	왕, 夫人, 嬪, 侍從臣僚, 宮女, 伶官
B-①	『삼국유사』 김부대왕	왕, 妃, 嬪, 宗戚, 公卿大夫, 士女
B-②	『삼국유사』 견훤	왕, 夫人
C-①	『고려사』 태조10년 9월	왕, 妃(夫人), 嬪, 宗戚, 從臣, 伶官, 宮女
C-②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10년) 9월	왕, 夫人, 嬪御, 宗戚, 侍從臣僚, 宮女, 伶官

다음에 士女(A-①, B-①)가 보이고 있다. 사녀가 등장하는 다른 사료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E-① 金陽이 이에 좌우장군에게 명하여 기사를 거느리고 널리 알리기를 “본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이므로 지금 괴수가 죽었으니 衣冠士女와 百姓들은 망동하지 말라”하고 드디어 王城을 수복하니 人民들이 안도하였다(『삼국사기』권44, 열전4, 열전 김양).

E-② 태조 휘하의 군사는 정숙하고 공정하여 조금도 나쁜 짓을 저지르

12) 빈어는 천자를 근시하는 궁녀인데, 嬪媵이라고도 한다(諸橋轍次, 『大漢和辭典』3, 大修館書店, 1984(修訂版), 766쪽). 『삼국사기』 궁예 열전에서는 궁예의 母를 현안왕의 嬪御라고 하였다.

지 않았으므로 도인 사녀(都人士女)들이 서로 경하해 하며 말하였다. “옛날 甄氏가 왔을 때에는 마치 승냥이나 범을 만난 것 같았는데 지금 王公이 이르러서는 마치 부모를 보는 듯하구나”(『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5년 2월).

E-③ 良志가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에 스스로 入定해서 正受로 대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으니 이 때문에 성의 사녀(城士女)들이 다 투어 진흙을 날랐다(『삼국유사』권4, 양지사석).

士女는 일반적으로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다.¹³⁾ 사료 E-②에 보이는 都人士女들은 도성의 사람들이란 의미와 함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 이른바 ‘國人’들과 같은 존재로 쓰였다. 사료 E-①에서는 의관사녀와 백성들은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E-③에서는 성 안의 일반 백성들(城士女)의 의미로 보인다. 이들은 포석정 행사에 왕과 함께 공식적으로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관람하러 나온 사람들로 생각된다. 때문에 기록에 누락될 수도 있지만, 포석정 사건의 현장에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이 날의 행사가 백성들도 구경하는 공개적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伶官은 곧 樂官이다. 신라에서는 音聲署에 속하는 舞尺, 歌尺, 琴尺 등의 악공들이 왕의 공식적인 행차에 동행하여 행사의 춤과 음악을 맡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녀가 들어간 사료(A-①, B-①)에서는 궁녀와 악관이 보이지 않고, 궁녀와 악관이 들어간 사료(A-②, C-①, C-②)에서는 사녀가 빠져 있다. 왕비와 빈이 행차했다면 궁녀가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의 기록에서처럼 仲冬에 연회를 위해 포석정에 행차한 것에 대한 의문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¹⁴⁾ 이를 국가적 위기를 호국신의 도움으로

13) 諸橋徹次, 『大漢和辭典』3, 1984(修訂版), 282쪽.

14) 三品彰英은 포석정은 호국신과 남산신에게 기원하는 곳으로, 국가 존망이 다 할 즈음에 왕이 포석정에서 국가 존망 직전까지 가무를 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놀러가서 가무를 즐긴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日鮮神話傳説の研究』, 柳原書

극복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종교적 행사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¹⁵⁾도 있지만, 앞의 기록에서 본 것처럼 이날 행사는 종교적 의미와 아울러 백성들도 포석정에 나와 관람하는 세시풍속적 성격이 있었다. 때문에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를 팔관회와 관련지우는 견해¹⁶⁾가 주목된다. 그렇지만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를 팔관회와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신라 팔관회가 10월에 황룡사에서 열렸다는 기록을 재검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그것을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맥락적으로 연결시킨 논의는 없었다.

신라의 국가 祭日에 仲冬은 보이지 않는다.¹⁷⁾ 그리고 이날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에는 왕비와 빈, 궁녀와 악관이 동행하였고, 사녀들이 구경하고 있어 제례나 정치 의식뿐 아니라 歲時名節의 성격도 있었다.¹⁸⁾ 세시명

店, 1943, 93쪽).

- 15) 전기웅, 앞의 책, 2010, 109쪽. 이종욱은 포석정은 유상곡수를 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포석사와 같은 사당이었으며, 나라의 안녕을 비는 행사가 치르지는 곳이었다고 하였다(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341~342쪽).
- 16)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4·5합, 1993; 金惠淑, 『八關會의 機能과 變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쪽. KBS 역사스페셜을 책으로 편집한 『역사스페셜』3, 효형출판, 2001, 39쪽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 외 다수의 논자들이 단편적으로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본고에서 모두 언급하지 못하였다.
- 17) 『삼국사기』 제사지 참고.
- 18) 고려 태조 때 팔관회는 구정의 공연장에서 백희와 가무가 공연되어 왕부터 일 반백성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밤낮동안 이것을 보고 즐겼는데, 궁궐이 개방되어 관민이 어울려진 의식이었다(韓基汶,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27, 2003, 46쪽). 『신증동국여지승람』권4, 개성부 풍속 조에 팔관회를 설명하면서 “百官이 조복을 입고 홀을 들고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도성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며, 밤낮으로 즐기고 입금이 위봉루에 나와서 구경하였는데, 이듬하여 供佛樂神의 모임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로 해마다 행하였다”라고 하였다.

절이 지속성을 가지고 전승되었다고 할 때, 고려의 속절이 이에 참고할만하다. 『고려사』권84 刑法志 1에 따르면 고려시대 俗節에는 元旦·上元·寒食·上巳·端午·重九·冬至·八關·秋夕 9가지가 있었다. 이중 고려 시기 팔관에 대해 살펴보자.

- F-① 光化 원년 戊午(898년, 효공왕 2년) 겨울 11월에 비로소 八關會를 마련하였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궁예).
- F-② 11월에 왕이 처음으로 팔관회를 열고 儀鳳樓에 나가서 이를 관람하였다. 이때부터 해마다 경상적으로 행사를 실시하였다(『고려사』권1, 태조 원년 11월; 『고려사절요』권1, 태조 원년 11월).
- F-③ 태조 원년 11월에 해당 기관에서 “진 임금(前主)은 매년 仲冬에 팔관회를 크게 배설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그 제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은 그의 말을 좇았다. 그리하여 구정에 輪燈 하나를 달고 香燈을 사방에 달며 또 2개의 채봉을 각 5장 이상의 높이로 매고 각종 잡기와 가무를 그 앞에서 놀리었다. 그 중 四仙樂部와 龍鳳象馬車船 등은 다 新羅故事였다(『고려사』권69, 仲冬八關會儀).

사료 F-①에서는 팔관회가 광화 원년에 시작하였다고 했으나, 팔관회는 이미 신라 진흥왕 12년(551)부터 행해지고 있었다.¹⁹⁾ 『삼국사기』진흥왕 33년(572)에는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팔관연회가 10월 20일 外寺에서 7일간 열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궁예에 의해 팔관회가 11월에 개최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⁰⁾

19) 이에 거칠부가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와서 왕을 뵈게 하니, 왕은 범사(惠亮)을 승통으로 삼았다. 이때 비로소 백좌강회와 八關之法이 시작되었다(『삼국사기』권44, 열전4, 열전 거칠부).

20) 安啓賢, 「八關會攷」 『동국사학』4, 1956, 40~41쪽; 문경현, 앞의 책, 1987, 37쪽; 안지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56쪽.

그러나 진흥왕 대의 팔관연회가 그대로 상례화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이 중국의 太和池 곁을 지나다가 만난 神인이 황룡사 9층탑을 세울 것을 말한 뒤, “탑을 세운 뒤에 八關會를 열고 죄인을 풀어 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²¹⁾ 이것은 진흥왕 대의 팔관연회가 상례화되지 못하다가 자장에 의해 팔관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불교적인 의미가 부각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황룡사9층탑은 645년 완성되었고,²²⁾ 이후 팔관회가 仲冬의 국가의례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팔관회는 전사사졸을 위한 위령제적 성격에 호국적인 불교 의례가 부각되었고, 이에 연회와 오락이 추가되면서 왕에서 백성까지 참여하는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아 갔다.²³⁾

팔관회는 고려에서도 개경과 서경에서만 개최된 행사²⁴⁾임을 감안한다면, 신라에서도 왕경이나 소경 정도에서만 행해졌을 것이다.²⁵⁾ 왕건 부자의 귀부를 계기로 898년(효공왕 2년) 松嶽에 도읍한 궁예는²⁶⁾ 이때 신라 왕경에서 행해지던 팔관회를 송악에도 열었다고 생각된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함과 아울러 계속되는 전란이 주는 불안감을 팔관회를 통해 해소하고 세력권 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는

21) 『삼국유사』권3, 黃龍寺九層塔

22) 『삼국유사』권3, 黃龍寺九層塔

23) 팔관회는 그 기원을 고구려의 동맹으로 보아야 하며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부터 비록 이름은 불교식으로 팔관회라고 불리우기는 하였으나 하늘신을 제사지내고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면서 한 때를 보내던 민족제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최근, 「팔관회에 대한 간단한 고찰」 『역사과학』1987년 2호, 1987, 39쪽).

24) 고려 팔관회는 서경에서 10월, 개경에서는 11월에 행해졌다.

25) 이기동은 경덕왕 4년(745) 7월에 설치된 少年監典이 팔관회 행사를 전담하는 官府가 아닌가 추측하였다(『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97, 302쪽).

26)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2년 7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궁예는 904년(효공왕 8년) 百官을 설치하였는데, 관직의 이름은 다소 다른 것이 있었으나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였다.²⁸⁾ 고려 팔관회의 행사가 新羅故事를 본받았다고 한 것은(사료 F-③) 행사 내용 뿐 아니라 일정도 신라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된다. 궁예에 의해 팔관회의 날짜가 변경되었다면 궁예가 설치한 정치기구를 신라의 것으로 다시 복구한 왕건²⁹⁾이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궁예나 왕건에 의해 팔관회가 시행된 시기는 아직 신라의 팔관회도 존속했을 때였다. 때문에 신라의 팔관회일과 태봉, 고려의 것이 서로 달랐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왕건이 훈요10조에서 팔관회를 장려한 것은 그 유래가 신라에서부터 이어 내려오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었다.³⁰⁾

G-① 여섯째, 나의 지극한 관심은 燃燈과 八關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岳,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忌日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고려사』권2, 태조26년 4월).

G-② 후손이 선대의 제도를 따라서 仲冬의 좋은 달에 넓은 宮庭에 예식을 성대히 차렸는데, 종과 복 등의 온갖 악기를 갖춘 것은 스스로

27) 안지원, 앞의 책, 2011, 153쪽.

28)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8년

29) 『고려사』권1, 태조 원년 6월 무진

30) 1168년 의종이 觀風殿에 가서 내린 교서에는 “仙風를 준수하고 숭상해야 한다. 옛날 신라 때에는 仙風이 크게 성행하였다. 그런 까닭에 우리 선조 적부터 그 풍속을 숭상하여 온 지가 오래였는데 근래에는 兩京의 팔관회가 날이 갈수록 옛 격식이 줄어들고 이전 풍속이 점차 쇠퇴하여 진다(『고려사』권18, 의종22년 3월 무자)” 라고 하였다. 또한 광동순이 찬한 「八關會仙郎賀表」(『동문선』권31, 表箋)에 의하면 왕건은 신라의 仙籍을 살피어(按仙籍於鷄林) 팔관회를 정했다고 한다.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늘이 모두 기뻐하여 태평을 누리는 것입니다(이규보, 「法王寺八關說經文」 『동국이상국집』권39).
 G-③ 11월 경진일에 팔관회를 열었다. 왕이 幕次에서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殿上의 女樂은 철거하게 하고 그 길로 법왕사에 갔다(『고려사』권17, 의종 즉위년 11월 庚辰).

사료 G-①은 태조 왕건의 훈요10조 중 하나로 고려의 팔관회를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고 있다. G-②에서 이규보는 팔관회 예식 때 종과 북 등의 온갖 악기를 모두 갖추었다(鐘鼓之畢陳)라고 하였으며, G-③에서 고려 의종은 국상 중에 팔관회를 열었기 때문에 女樂은 철거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 팔관회에는 악공과 女樂이 동원되어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연회를 즐긴 ‘君臣同樂宴’의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사』 이송인 열전에는 諫官이 상소하여 이송인을 논죄하는 가운데, “起復 중에는 종묘의 제사, 신년, 동지, 왕의 생신 및 팔관, 연등과 같은 일체 朝會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성문법(國家成文)입니다”라고 하였다.³¹⁾ 이는 팔관에는 신료가 조회처럼 참석해야 하는 국가의 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927년 포석정 사건 때 신료들이 경애왕과 함께 참석하였고, 궁녀와 악관이 동행하였고, 遊鮑石亭宴娛라고 하거나 置酒娛樂이라고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규보는 “선대의 제도를 따라서 仲冬의 좋은 달에 넓은 宮庭에 예식을 성대히 차렸다”(사료 G-②)라고 하여 팔관회가 중동에 개최된 것은 선대의 제도에 따라서 였다고 하였다. 참지정사 문극겸은 태후의 기일인 동짓달을 피해 팔관회를 10월에 거행하자는 예관의 요청에 대해 명종이 의견을 물어오자 태조의 유조를 들어 반대하였다.³²⁾ 또한 앞의 G-① 사료에

31) 『고려사』권115, 열전 이송인

32) 팔관회는 태조께서 시작한 것으로 천지의 신명을 위한 것이니 후대의 왕이 무

서 왕건은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고 하면서,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忌日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라고 하였다. 고려 태조 때는 上元 燃燈會, 즉 1월 15일에 거행된 연등회였다. 이미 신라말 경문왕 6년 정월 15일과 진성여왕 4년 정월 15일에 황룡사로 행차하여 간등하였다는 기사는 신라시기에 정월 연등행사를 했음을 보여준다.³³⁾

그렇다면 고려의 팔관회도 일자가 궁예에 의해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신라의 것을 충실하게 이어받았다고 보여 진다. 고려 연등회와 팔관회에서는 백회가무가 공연되는데 『고려사』예지에 실려 있는 다른 의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팔관회는 당시 전 국가적 행사였으며, 신라와 태봉에 이어 고려에도 계승되어 민심 수습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팔관회는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각 계층의 호국적 기원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었다.³⁴⁾

슨 일이 있다고 하여 그 기일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태조께서 신명 앞에서 “바라건대 대대로 동짓달에는 국상이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일 불행하게 국상이 있을 경우 이것은 국운이 쇠망하여 가는 징조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비셨습니니다(『고려사』권99, 열전 문극겸; 『고려사』권64, 國喪 明宗 11년 기해).

33) 한기문, 앞의 논문, 2003, 31쪽.

34) 이것은 왕건과 최응과의 다음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태조는 干戈로 나라를 처음 세울 때에 陰陽과 浮屠에 뜻을 두었다. 참모 崔凝이 간하기를, “傳에 말하기를 ‘어지러운 때에는 文德을 닦아 人心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王者는 비록 전시를 당했더라도 반드시 문덕을 닦는 것이온데 음양이나 부도에 의해 천하를 얻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하였다. 태조는 “그 말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수는 신령스럽고 기이한데 편벽한 지역에 있으므로 백성들 성품이 부처나 신을 좋아함으로써 행복과 이익을 구하려 한다. 지금은 전쟁이 쉬지 않고 안위를 결정하지 못해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리하여 부처와 신의 비밀한 도움과 산수의 영험에 혹 잠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 뿐인데 어찌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얻는 큰 법을 삼겠는가? 세상이 안정되고 편안히

한편 사료 G-①에서 고려는 연등과 팔관의 행사를 구분하여, 연등은 불교 행사로,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岳·명산 대천·용신을 섬기는 것이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신라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F-③을 보면 고려 팔관회 때 행하던 백희가무 중에서 四仙樂部와 龍鳳象馬車船은 다 新羅故事였다고 했는데, 이는 사료 G-①의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岳,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와 부합된다.

황룡사는 중대 말부터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여 하대에 이르러 이전에 가졌던 국찰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⁵⁾ 신라에서 거행된 百座講會와 看燈에 관한 기록 대부분이 하대에 집중되어있으며, 그 장소는 황룡사였다.³⁶⁾ 곧 국왕이 참석한 백좌강회와 간등 등의 불교행사가 황룡사에서 행해졌다면,³⁷⁾ 하늘의 신령과 5岳·명산 대천·용신을 섬기는 팔관회는 통일이전의 신라 五嶽이었던 남산³⁸⁾에 있는 포석정이 적합한 장소였을 것이다.

고려 성종12년(993)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李知白은 선왕의 燃燈, 八關, 仙郎 등의 일을 행하기를 주하였다.³⁹⁾ 후백제군이 고을부까지 침공하

살기를 기다려 풍속을 바꾸고 교화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崔滋, 『補閑集』上).

35) 蔡尙植, 「신라사에 있어서 황룡사의 위상과 그 추이」, 『황룡사의 종합적 고찰』(신라문화재 학술논문집 22), 2001, 200~201쪽; 金志垠, 「신라 경문왕의 왕권강화정책」, 『경주사학』21, 2002, 21쪽.

36) 이기백,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52~57쪽.

37) 경애왕은 동광 2년(924) 2월 19일에 황룡사에서 百座를 열어 불경을 풀이했다. 겸해서 禪僧 300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왕이 친히 향을 피워 불공을 드렸는데, 이것이 백좌로 설립한 禪敎의 시작이었다(『삼국유사』권2, 경애왕)고 하였다. 이는 경애왕이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력의 열세를 종교적 기원에 의지해 보려는 태도로 보인다.

38)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06쪽.

39) 前民官御使 李知白이 奏하기를 “…… 경솔히 토지를 빼어서 적국에게 버리는 것 보다는 다시 선왕의 燃燈, 八關, 仙郎 등의 일을 행하여 타방의 異法을 행하

여 서울 교외를 압박한 927년 11월에 경애왕이 포석정으로 행차한 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팔관회의 전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호국의 염원을 담은 종교적 기능⁴⁰⁾에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국왕 개인의 오락을 위한 일회성 행사라기 보다는 왕실과 종척, 신료들은 물론 궁녀와 악공까지 동행하고 백성들도 관람한 세시명절로, “탐을 세운 뒤에 八關會를 열고 죄인을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外賊不能爲害)”라고 한 호국적인 행사였다.

Ⅲ.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

앞 장에서 경애왕이 팔관회를 위해 포석정으로 행차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팔관회는 국왕 개인의 연회가 아니라 호국 기원을 위한 것이며, 국가적인 의례였기 때문에 왕실과 신료 집단도 참석하였으며, 연례적인 세시명절처럼 행해졌기에 오락과 가무가 추가되어 사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였다. 이것이 927년 11월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후백제군은 경애왕을 포로로 잡기 위해 신라 왕궁이 아닌 포석정을 습격하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후백제군이 경애왕이 그때 포석정에 행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포석정 사건에 신라 내부의 반박씨 왕가 세력이나 친후백제 세력의 내통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⁴¹⁾

지 말아서 국가를 보전하여 태평을 이룩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먼저 神明에 고한 연후에 싸움하고 화해하는 것은 오직 上이 판단 하소서”하니 성종이 그렇게 여겼다. 때에 성종이 華風을 즐겨 따르니 국인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고로 知白이 언급한 것이다(『고려사』권94, 열전 서희).

40) 김혜숙, 「高麗 八關會의 內容과 機能」 『역사민속학』9, 1999, 39쪽.

41) 신호철은 견훤이 쉽게 도성에 진입한 것이나 경애왕이 酒宴會場에서 견훤군을

그러나 팔관회의 세시풍습적 성격 때문에 이날 경애왕의 일정은 거의 공개되어 있었고, 후백제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은 후백제군이 포석정에 행차한 신라왕을 습격하기 위해 출병한 단독 작전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수세적 방어에 있던 고려가 전면적 공세로 나서 용주를 공격하는 927년 1월부터 시작해서 신라를 구원하려 온 왕건이 참패하는 공산 전투와 후백제군이 벽진군의 곡식을 불사르고 철군하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전투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용주에서부터 고을부, 경주까지 이어지는 경북 북부와 신라 서쪽 변방과 남해안을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군과의 충돌 과정의 연결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927년 1월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 사건의 발단을 찾아보자.

庚辰에 견훤이 보낸 인질 眞虎가 병들어 죽자 시랑 弋薑을 보내어 그 시신을 호송하였다. 이에 견훤은 우리가 그를 죽였다면서 王信을 죽이고 웅진에 진군하였다. 왕이 여러 성에 명하여 “성벽을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견훤이 굳은 맹세를 어기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왕께서 한 번 戰鼓를 울리는 위세를 떨치기만 하면 견훤은 반드시 저절로 패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죄악에 차서 스스로 쓰러

맞은 것 등은 신라 내의 호응 내지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경애왕의 반대 세력인 김씨 왕족과의 사전 협력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신라의 멸망과 견훤』 『忠北史學』2, 1989, 26쪽)으로 추측하였다. 조범환은 김부 일파가 포석정 연회를 주최하고 견훤을 불러들여 경애왕 및 그 측근세력을 제거한 것으로 보았으며(『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129, 1991, 19쪽), 이명식은 포석정 잔치는 박씨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경애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았다(『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83, 2006, 22~23쪽).

질 것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고려사』권1, 태조 9년 여름 4월).

고려에 보낸 인질 진호가 사망한 것을 구실로 926년 후백제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건은 “성벽을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말라”고 하거나,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죄악에 차서 스스로 쓰러질 것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여, 수세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927년 당시 후백제군의 전력은 고려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²⁾ 수세적 방어에 있던 고려는 927년 1월 용주를 공격함으로써 공세로 전환하였다.⁴³⁾

정해 10년(927) 봄 정월 을묘일에 왕이 친히 백제 龍州를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때에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누차 출병하여 우리 변강을 침범하였으나 왕은 오래 동안 참아왔다. 그러나 견훤의 죄악이 점점 더하여 자못 우리를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왕이 이를 쳤던 것이다. 신라왕이 출병하여 우리를 도왔다(『고려사』권1, 태조 10년 정월).

왕건의 즉위 이후 궁예를 지지하던 세력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왕건은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외부적 진출은 자제하고 있었다.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누차 출병하여 우리 변강을 침범하였으나

42)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36쪽; 申虎澈, 앞의 논문, 1989, 36쪽; 정요근, 「後三國時期 高麗의 남방 진출로 분석」 『韓國文化』44, 2008, 10쪽; 신호철, 「후백제」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4쪽; 음선혁,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귀부의 정치적 성격」 『전남사학』11, 1997, 122~123쪽. 그러나 김갑동은 927년 9월의 고을부 점령 이전까지는 후백제군의 시련기로 보고 있다(김갑동,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36~39쪽).

43) 류영철은 후백제와 화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던 고려는 927년 정월의 용주 공격을 계기로 후백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곧 고려의 후백제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류영철, 앞의 책, 2005, 91쪽).

왕은 오래 동안 참아왔다”는 위의 사료는 이를 말한다. 그러나 견훤이 고려를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수세적 방어만을 할 수가 없었다.

왕건은 자신이 직접 親征에 나서 927년 1월 후백제 세력권인 龍州(현 예천군 용궁면)을 쳐서 항복을 받았는데, 이때 신라는 군사를 내어 고려군을 도왔다.⁴⁴⁾ 그리고 3월에는 예천군의 영현이었던 近巖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4월에는 해군장군 莢昌·能式 등을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강주를 공격하게 하고, 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 등 4개 鄕을 함락시키고 포로를 잡아 왔다.⁴⁵⁾ 또한 신라의 서쪽 방면에서는 927년 3월 運州(현 충남 홍천)를 점령하고, 이어 4월에는 응주(현 충남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7월에는 大良城(현 경남 함천)을 격파하였다.⁴⁶⁾ 927년 8월 왕건은 高思葛伊城⁴⁷⁾ 일대를 순행하고 후백제의 영향 하에 남아 있던 인근 지역의 귀부를 받았고,⁴⁸⁾ 그 부근에 拜山城을 수축한 후 正朝 悌宣으로 하여금 군사 2隊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⁴⁹⁾ 고려는 이때 경상북부와 충남,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육군과 수군까지 동원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견훤도 직접 출전에 나서 927년 9월에 近巖城(近品城)⁵⁰⁾을 함락

44)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정월; 『고려사』권1, 태조 10년 정월; 『고려사절요』권1, 태조 10년 정월

45)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3월~4월; 『고려사』권1, 태조 10년 3월~4월

46) 『고려사』권1, 태조10년 7월; 『고려사절요』권1, 태조 10년 7월

47) 聞慶郡을 ‘一云 高思葛伊城’이라고 하였다(『고려사』권57, 지리2 문경군).

48) 『고려사』권1, 태조10년 8월 병술

49) 『고려사절요』권1, 태조10년 8월

50)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近品城으로, 『삼국사기』에서는 近巖城으로 표기했으나, 같은 지명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 지역을 둘러싼 후백제와 고려와의 전투 당시 지명에 대해서는 서성희·권영오, 「重修龍門寺記에 나타난 醴泉龍門寺의 寺格 變化」 『지역과 역사』22, 2008, 135~137쪽 참고.

시켰다. 근암성을 재탈환한 후백제는 고을부(현 경북 영천)를 쳐들어 갔고, 이에 신라는 고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겨울 10월 기사일에 신라 고을부 장군 능문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그 성이 新羅 王都에 가까우므로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다만 그 부하들인 시랑 誚近과 대감 明才, 相述, 弓式 등만을 남겨 두었다(『고려사』권1, 태조 8년 10월).

고을부는 위의 사료에서처럼 태조 8년(925년) 이후 이 지역 호족인 능문이 고려에 來投한 상황이었다. 고을부가 신라 왕경과 가까운 것은 위의 사료에서 잘 드러난다. 헌덕왕 14년(822) 반란을 일으킨 김현창 군이 왕도를 쳐들어 가다 신라 조정군과 첫 번째로 마주친 곳도 도동현(현 경북 영천)이었다.⁵¹⁾ 오늘날 영천에서 경주시 서면이나 아화를 거쳐 모량에 이르면 다음 경주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신라 당시의 주요 교통로였다.⁵²⁾ 그리고 이때 이미 모량리까지 후백제군이 침입하고 있었다.

H-① 10년에 도적이 나라의 西南 方面에서 일어나, 바지를 붉게 하여 스스로 다르게 하므로 時人이 이를 赤袴賊이라 불렀다. 그들은 州縣을 무찌르고 서울의 西部 牟梁里에 이르러 민가를 겁탈하여 갔다(『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10년).

H-② 孫順은 牟梁里人으로 손순은 옛 집을 내놓아 절을 삼아 흥효사라 하고 돌종을 두었는데, 진성왕 대에 백제의 도적들(百濟橫賊)이 이 마을에 들어오는 바람에 종은 없어지고 절만 남았다(『삼국유사』권5, 孫順埋兒).

51)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52) 『고려사』 병지 참여 조에 慶州道에서 관장하는 역참 23개중 牟良과 阿非이 보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상도 경주부 驛院 조에도 阿火驛과 牟梁驛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경주부에 있는 역 11개 중 牟良과 阿火가 보인다.

적고적이 일어난 신라의 국도 서남 방면은 진성여왕 10년(896) 경에는 견훤의 세력 하에 있었다. 이들은 바지를 붉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만큼 세력을 과시하였으며,⁵³⁾ 나라의 서남 지방(國西南)에서 왕경의 서부 모량리(京西部 牟梁里)까지 먼 거리를 쳐들어 왔다. 때문에 이들은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단순한 초적이거나 농민 봉기군이 아닌 조직을 갖춘 군대로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⁵⁴⁾ 견훤이 후백제왕을 자칭하고 관직을 마련한 것이 신라 효공왕 4년(900)으로⁵⁵⁾ 아직 백제라고 자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赤袴賊으로 불린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곧 후백제 군대가 王京西部 牟梁里까지 쳐들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阿弗鎭은 경주의 서면 아화리에 설치된 것으로 영천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지만,⁵⁷⁾ 모량리를 침입한 후백제군을 막지 못하였다.⁵⁸⁾ 문무왕이 왕경의 성곽을 쌓으려다가 의상의 건의로 그만 두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⁵⁹⁾ 신라에는 왕경을 둘러싼 長城이 별도로 축조되지 않은 대신에 동에는 명활산성, 서에는 서형산성, 남에는 남산신성 등 주위의 산성이 나성의 역할을 하였다.⁶⁰⁾ 당시의 중요 교통로가 있는 4방

5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287쪽.

54) 이에 대해서는 견훤의 군사적 기반을 신라의 정규 군인으로 파악한 견해가 참고된다(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93, 29쪽;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15, 1999, 272~273쪽; 이도학, 「甄萱의 出身地와 그 初期 勢力 基盤」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66쪽.

55) 『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56) 김갑동, 앞의 책, 2010, 127~128쪽.

57)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일조각, 1997, 390~391쪽;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설치와 성격」 『軍史』35, 1997, 46~47쪽.

58) 후백제는 933년 5월에도 神劍을 보내 아불진을 약탈하였으나, 유급필이 이끄는 고려군에 의해 격퇴되었다(『고려사절요』권1, 태조 16년 5월). 이를 통해 볼 때 후백제군이 신라 왕경으로 침입하는 길목에 아불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9)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6월; 『삼국유사』권2, 문호왕 법민

60) 朴方龍, 「都城·城址」 『한국사론』15, 1985, 338~387쪽.

에 산성을 축조하고 富山城이나 西兪山城이 왕경의 서쪽을 지키는 나성 역할을 하였지만⁶¹⁾ 후백제군은 포석정 사건 이전에 이미 모량리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백제군은 고을부는 물론 모량리까지 침입하였지만 아직 서천(형산강)을 넘어 왕경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포석정 사건에 대해 아무리 불가사의한 전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견훤의 군대가 고을부에서 경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경애왕이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있다.⁶²⁾ 그러나 ‘불가사의한 전법’이 아니더라도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이 가능하다면,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27년 11월 포석정 사건 당시 경애왕은 왕궁을 나와 남천에 놓인 월정교를 건너 오릉과 창림사가 있는 길⁶³⁾을 따라 포석정으로 행차하였을 것이다. 이 길은 당시 수행원을 고려해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⁶⁴⁾ 이때 포석정이 남산 자락에 있는 것 뿐 아니라 서천 강변에 붙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고을부까지 진출한 후백제군은 11월에 이미 침입한 적이 있는 모량으로 들어와 大川강변을 따라 서천에 도달한 후, 한 겨울 얼어붙은 혹은 물이 줄어든 서천을 건너 포석정을 급습하였을 것이다.⁶⁵⁾

61) 朴方龍, 「新羅王都의 守備」, 『신라문화』9, 1992, 28~30쪽.

62)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4·5합, 1993, 48쪽.

63) 이 길은 “홍덕왕 때인 太和 원년 정미(827)에 당에 갔던 고구려 學僧 丘德이 불경 몇 상자를 가지고 오므로 왕이 여러 절의 스님과 함께 홍륜사 앞길에 나가 맞이하였다(『삼국유사』권3, 전후소장사리)”에 나오는 ‘輿輪寺前路’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64) 고려시기 연등회 때 국왕은 봉은사로 행차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는 고려 궁궐 터인 만월대에서부터 봉은사지로 추정되는 위치까지는 직선거리로도 3km나 된다. 팔관회 때 국왕은 법왕사로 행차하였는데, 법왕사는 궁궐의 동북쪽, 태자궁인 춘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이상은 안지원, 앞의 책, 93쪽 및 186쪽에서 인용).

65) 한정훈은 홍륜사 前路나 서천을 가로지르는 金橋(西川橋)를 건너(鷄林)西郊를

그러나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라 왕경 주변의 군사 방어시설을 뚫고 경애왕이 피신도 못할만큼 신속히 군대를 움직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당시 경애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⁶⁶⁾ 앞의 것은 고을부에서 왕경까지의 행군로 및 군사 방어시설에 관한 정보이고, 뒤의 것은 당일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 일정에 관한 정보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훤의 출생지와 경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훤은 상주 加恩縣 출신으로, 그의 父 阿茲介는 沙伐城을 근거로 장군을 자칭하였다.⁶⁷⁾ 상주는 신라의 대당 건당사의 출입 관문인 당항포로 가는 길목에 있어 왕경과 교통이 잦은 곳이었다.⁶⁸⁾ 따라서 자신의 출생지 상주(또는 가은현)에서 왕경까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⁶⁹⁾ 뿐만

경유하여 外方으로 뺏어가는 鹽池通을 언급하면서, 견훤은 고을부를 습격한 뒤 鷄林西郊로 표현되는 지금의 건천지역을 통과하여 서천을 건너 경주로 진군하였다고 하였다(『신라통일기 육상교통과 五通』, 『釜大史學』27, 2003, 41쪽). 문안식은 후백제군이 영천에서 신령-화산-호당-도동-임포-아화-건천-모랑을 거쳐 경주에 진입하였다고 추정하였다(『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154쪽).

- 66) 김철준은 후백제군이 수도에 침입하여 올 때에 경주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견훤의 침입을 왕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리하여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향락에 취해 있다가 붙잡히게 된 것은 당시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일반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백안시 당하고 있었던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신라의 촌락과 농민 생활』,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8, 132쪽)라고 하였다.
- 67) 『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삼국유사』권2, 후백제 견훤.
- 68) 상주는 王城의 동북쪽에 있는데, 당항포로 가는 길목에 있다(『삼국사기』권34, 지리지 서문). 權應永은 신라건당사들이 넘나들던 통행로를 상주를 거쳐 계림령을 넘어 충주, 당은포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192~193쪽).
- 69) 한정훈은 신라의 五通 중 北僞通은 건천까지는 염지통과 비슷하며, 건천에서 북상하여 왕경 진입 요지인 고을부를 거쳐 阿尸村小京(의성군) 일대를 중간 귀착지로 하고 상주나 영주 방면에서 계림령이나 죽령 등을 넘어 한주나 삭주 방면으로 이른다고 하였다(한정훈, 앞의 논문, 2003, 44~45쪽).

아니라 견훤은 신라 왕경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적이 있었다.

(견훤이) 장성해서는 체모가 웅대하고 志氣가 활달하고 비범하였다. 종군하여 王京에 들어 갔다. (후에) 서남해의 防戍에 부임하였는데 沈戈待敵하는 등 그 용기가 항상 사졸의 앞에 있었다. 그 공로로 裨將이 되었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견훤은 종군하여 왕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경과 그 주변의 군사 방어 체제를 잘 알 수 있었다.⁷⁰⁾ 그리고 왕경 생활을 통해 11월에 왕이 포석정에 행차하는 의례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고을부까지 쳐들어온 견훤은 이러한 경험과 정보가 있었기에 경애왕과 신료들이 행차한 포석정을 급습하여 경애왕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을부까지 후백제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경애왕이 포석정으로 행차하는 위험을 감수했을까하는 의문은 남아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애왕의 행차는 왕 개인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례적인 세시명절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늘의 신령과 명산대천에 기원하는 호국적인 행사인 팔관회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애왕은 왕실과 관료들을 거느리고 포석정에서 열린 이 국가적 호국 행사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I-① 10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보병과 기병 일만을 거느리고 와서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군사를 진례성에 진군하였다. 왕은 아찬 김를을 보내어 태조에게 원조를 구하였다. 태조가 장수들에게 명하여 군사를 보내 구원하니 견훤이 이를 듣고 가버렸다(『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70) 신호철은 견훤이 신라의 중앙군으로 入京할 때 그의 家兵들을 이끌고 갔으며, 그가 중앙군에서 서남해안의 방수군으로 파병되었을 때도 이들 가병 역시 견훤을 따라 갔을 것이라고 하였다(신호철, 앞의 책, 1993, 15쪽).

I-② (920, 경명왕 4년)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여 大良, 仇史 2郡을 취하고 眞禮郡에 이르렀다. 신라가 아찬 김를을 보내와서 원군을 청하므로 왕이 병사를 보내어 구하게 하였다. 견훤이 이를 듣고 물러났는데, 우리와 틈이 있게 된 시작(始興我有隙)이었다(『고려사』권1, 태조3년 10월).

사료 I는 포석정 사건보다 7년 앞선 920년, 후백제군이 대야성을 함락하고 진례성에 진격하자 신라가 고려에 사신 김를을 보내 구원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때 고려가 원군을 보내자 후백제군은 물러났는데, 이것이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틈이 있게 된 발단이라 할만⁷¹⁾ 후백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으며, 고려군의 출전이 큰 압력이 되었다.⁷²⁾ 927년의 경우도 920년 후백제군의 진례성 진군 때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⁷³⁾ 927년 후백제군은 근암성을 재탈환하고 고을부까지 이르렀다. 이때 신라 경애왕은 사신 連式을 보내 고려에 구원을 청하였고, 고려는 1만명의 원군을 보냈다. 경애왕은 후백제군이 920년의 경우처럼 철군하리라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920년 출전에서 교훈을 얻은 후백제군은 927년에는 다른 작전을 썼다.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려의 원군 1만명이 10월에 출동하였지만⁷⁴⁾ 후백제군과의 대치로 고려군의 진군이 수월하지 않았다. 공산전투에서 승리

71) 신호철은 이 사건을 그 동안 견훤 정권과 고려와의 사이에 유지되고 있던 화친 관계가 무너지고 공식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신호철, 앞의 논문, 1989, 31쪽).

72) 리용중, 『후삼국의 출현과 고려에 의한 그의 통일』, 과학원출판사, 1963, 148쪽.

73) 음선혁은 경애왕이 920년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고려에 군사 파견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7, 128쪽).

74) 신라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겨울 10월에 태조가 군대를 출동시켜 원조하였는데 견훤이 별안간 신라 서울로 쳐들어 갔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한 후 927년 12월 견훤은 왕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었다.⁷⁵⁾

…초겨울(冬初)에 都頭 索湘이 星山의 진영에서 사로 잡혔고, 한달이 안되어(月內) 左將 金樂이 美理寺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으며, 죽은 자도 많았거니와 사로 잡힌 자도 적지 않았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열전; 『고려사』권1, 태조10년 12월).

초 겨울(10월)에 성산의 진영에서 후백제군에게 사로잡힌(束手於星山 陳下) 도두 색상은 이때 구원군으로 온 고려의 장수로 보인다.⁷⁶⁾ 곧 1만이 나 되는 고려의 원군은 포석정 사건 이전에 성산에서 후백제군과 접전하여 패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석정 사건의 소식을 듣고 왕건은 자신이 직접 5천의 기병을 이끌고 출병할 수 밖에 없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는 이때 고려군의 패배를 축소하거나 간략하게 언급하였기에 9월의 근암성 전투에 이어서 10월에 출병한 1만명의 고려 원군의 동정, 11월의 포석정 사건과 보름 동안의 후백제군의 신라 왕경 점령, 공산전투까지를 9월 초에 모두 묶어서 서술하였다.

후백제군은 920년 전투에서처럼 고려 원군이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1만의 많은 원군을 보낸 것은 그만큼 후백제의 병력이 대규모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후백제군은 포석정 습격 뿐 아니라 고려 원군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신라를 침공한 것이다. 신라 왕경의 함락 소식을 듣고 精騎 5천을 끌고 달려온 왕건도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군에게 참패를 당하였다.

75) 이 檄書는 최승우가 작성했다고 한다(『삼국사기』권46, 열전6, 열전 최승우).

76) 『고려사』 태조10년 11월 기사에는 正朝 索湘이 벽진군에서 전사했다고 하였다. “신라가 우리와 친선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신라가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왕건이 구원을 명한 인물은 侍中 公萱, 大相 孫幸, 正朝 聯珠 등이었다. 그러나 정조 색상도 이때 왕건의 명을 받고 구원군을 이끌고 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IV. 후백제군의 경순왕 옹립

앞장에서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애왕의 피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에 의한 것임을 살펴 보았다. 후백제군의 경순왕 옹립도 이와 연결하여 파악해야 한다. 포석정 사건을 후백제군대의 급습과 왕경 약탈, 그리고 경순왕을 옹립하고 급히 철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포석정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⁷⁷⁾ 견훤은 경애왕을 제거하고 김부를 옹립할 의도를 가지고 신라 왕경을 점령하였고, 보름이나 머무른 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철군하였다.⁷⁸⁾ 그렇다면 후백제군이 경애왕을 제거한 이유와 새로 옹립한 경순왕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해진다. 급습과 약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후백제군이 신라 왕경을 점령한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자.

포석정에서 후백제군의 급습을 받은 경애왕은 왕비와 함께 후궁으로 도망가 숨었고, 후백제군은 신라 왕궁을 점령하였다. 견훤은 신라 왕궁에 들어가 거처한 후 부하들에게 경애왕을 잡아 오게 하여 軍中에 두고 자결을 강요했다고 하였다.⁷⁹⁾ 이에 의하면 경애왕이 자결을 강요당한 軍中이나 왕비가 옥을 당한 곳은 포석정이 아니라 신라 왕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래 사료는 후백제군이 신라 왕경을 점령한 후 벌어진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77) 전기웅은 왕경에 진입한 견훤은 신라를 병합하여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김부를 세우고 급히 물러났다고 하고,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그럴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전기웅, 앞의 책, 2010, 253쪽).

78) 음선혁도 견훤은 자신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경주를 침략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경애왕을 처단했다고 하였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7, 130쪽).

79)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 12, 경애왕 4년 11월; 『삼국유사』권2, 金傳大王; 『고려사』권1, 태조 10년 9월;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 9월

J-① 신라말 天成 중에 正甫 최은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 절(중생사)를 찾아 관세음보살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석달도 차지 못하여 백제의 견훤이 王師를 습격하여 성 안이 크게 혼란하게 되었다. 은함이 아이를 안고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 와서 일이 위급해졌습니다. 어린 것이 짐이 되어 둘다 화를 면하지 못할 듯 하니, 진실로 大聖이 주신 자식이라면 한 없이 자비로운 힘을 빌리시어 보호하여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나 보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재삼 고하였다. 아이를 강보에 싸서 부처 앉은 자리 아래 간직하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갔다. 반 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간 후 돌아와서 아이를 찾으니 이가 바로 丞魯이니 벼슬이 正匡에 이르렀다(『삼국유사』권3, 삼소관음 중생사).

J-② 왕(경애왕)의 至尊하심으로 하여금 足下(견훤)에게 굽혀서 아들이라 칭하도록 하여 尊卑가 질서를 잃었으니, 상하가 함께 걱정하여 “元輔의 忠純함이 있지 않으면 어찌 사직에 다시 안정을 얻겠는가?”라고 한다. 나는 마음에 악을 숨기지 않았고 존왕의 義에 간절하여 장차 조정을 구원하고 邦國의 위태로움을 붙잡으려 하는데, 죽히는 털끝만한 이익을 보기 위해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저버렸다. 君王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웠으며 卿士를 모조리 살육하고 士民을 무찔러 없앴다. 궁녀들을 약취하여 수레에 태워왔으며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하여 짐짝으로 실어 갔다(『고려사』권1, 태조11년 봄 정월).

사료 J-①에 의하면 후백제군이 신라 왕경에 보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료 J-②는 포석정 사건 이후 견훤이 보낸 글에 대한 왕건의 답서이다. 여기서 “왕의 至尊하심으로 하여금 足下(견훤)에게 굽혀서 아들이라 칭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왕건의 예에서⁸⁰⁾처럼, 경애왕도 견훤

80) 유금필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會戰하여 兵勢가 크게 떨치니 견훤이 두려워하여 화친하기를 청하여 外甥 眞虎를 볼모로 보내니 왕도 또한 堂弟 元尹 王信을 볼모로 보내었다. 왕은 견훤의 나이가 10년이나 위이므로 그를 尙父라 일컬

을 尙父라고 칭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⁸¹⁾ 또한 왕건은 견훤이 경애왕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웠으며, 관료들과 백성들을 죽이고 보물들을 약탈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앞의 사료에서 “子女와 각종 공인들 중 우수한 자 등을 따르게 하여 돌아왔다”(A-②)라고 하거나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莢景 등을 포로로 잡고, 자녀들과 각종 공인들과 병기, 보배들을 모조리 가지고 돌아갔다”(C-①)라고 하였다. 곧 이때 많은 신라의 왕경인들이 볼모로 후백제로 끌려간 것이다. 사료 J-①에서 최은함이 어린 자식과 같이 면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것은 바로 후백제에 인질로 끌려 갈 수 있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백제군이 경순왕을 옹립한 것에 대해서는 몇가지 주장이 제시되었다. 효종이 거느린 화랑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일종의 타협으로 경순왕을 세운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고,⁸²⁾ 견훤은 박씨 왕을 제거하고 김씨 왕을 세운다는 대외 명분을 내세워 신라 내의 김씨 왕족으로부터 경주 침공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다고 한 견해도 있다.⁸³⁾

당시 왕실의 혈연관계에서 볼 때 김부는 헌강왕의 사위인 효종의 아들로, 왕위계승이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후계 왕위계승 순위에 있어

었다(『고려사』권1, 태조 8년 10월; 『고려사절요』권1, 태조 신성대왕 8년 10월).

81) 邊東明은 尙父나 亞父란 親父처럼 존경하는 나이든 신하에 대한 군주의 존칭으로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칭호라고 하고, 견훤은 상주의 호족인 阿慈介에게 尙父라는 경칭을 내렸고, 이것이 견훤이 상주의 호족인 아자개의 아들로 알려지게 되었던 배경이라고 하였다(변동명,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 90, 2000, 49~50쪽).

82)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353쪽.

83) 申虎澈, 앞의 논문, 1989, 41쪽. 이에 대해 이강래는 궁극적으로 신라는 백제가 추구하는 일통의 대상일 뿐이었던 한, 신라 내부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박씨 왕통 자체를 대 신라 정책의 주요 동인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이강래, 「후백제의 당대 인식」, 『한국고대사연구』35, 2004, 38쪽).

경애왕의 동생 孝廉이 김부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것이다.⁸⁴⁾ 견훤은 경애왕을 제거한 후 김부보다 왕위계승 서열이 앞설 수 있는 경애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莢景을 인질로 잡아가고⁸⁵⁾ 경순왕을 옹립함으로써 친후백제 정권을 세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포석정 습격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⁶⁾ 『삼국유사』에서도 “(경순)왕은 견훤에 의해 즉위하였다(王爲萱所擧卽位)”⁸⁷⁾라고 하였다.

견훤은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⁸⁸⁾ 견훤과 왕건은 신라에 대해 「尊王之義」를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는 결코 의례적인 修辭만은 아니었다는 견해⁸⁹⁾도 있다. 그러나 견훤 뿐 아니라 왕건의 존왕론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성격이나 양면성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⁹⁰⁾

84) 포석정 사건 후 후백제에 인질로 끌려간 王弟 孝廉을 경순왕의 동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전기웅, 앞의 책, 2010, 244쪽; 丁善溶, 『高麗太祖의 新羅政策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5쪽). 그러나 ‘왕의 族弟 金傅로 왕위를 잇게 하고는,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莢景을 사로잡고’(『삼국사기』권50, 열전 10, 열전 견훤), ‘신라 왕의 외종제 金傅를 왕으로 세우고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莢景 등을 포로로 잡아’(『고려사』권1, 태조 10년 9월), ‘왕의 表弟 金傅를 세워 왕을 삼고 왕의 아우 孝廉과 宰臣 莢景을 사로잡고’(『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 9월)라고 했을 때, 경애왕의 족제(표제, 외종제) 김부를 왕으로 세우고, 경애왕의 동생 효렴과 경애왕대 재상 영경을 인질로 끌고 갔다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85) 조범환은 이를 박씨족 및 그의 지지세력이 다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로 보고, 이것도 김부 일파가 견훤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다(조범환, 앞의 논문, 1991, 19~20쪽).

86) 문경현은 왕건의 용주 공격작전 시에 신라가 응원군을 파견하여 합동작전하여 동맹군으로 싸운 데 대하여, 견훤은 대고려작전을 위하여 먼저 남방의 신라를 제압하고 친고려 왕권을 타도하여 친백제 내지 중립왕권을 세울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다(문경형, 앞의 책, 1987, 137쪽).

87) 『삼국유사』권2, 김부대왕

88) 申虎澈,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93, 142쪽; 鄭淸柱, 『新羅末高麗初豪族研究』, 일조각, 1996, 192쪽.

89) 신호철, 『후백제』,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6쪽.

견훤은 포석정 습격과 공산전투에서 승리한 후 12월 왕건에 보낸 국서에서 “목적하는 바는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어놓고 말에게 대동강의 물을 먹이는 것이다”⁹¹⁾라고 자신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결코 신라의 신하로서 존왕의 예를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신검이 대왕을 자칭하면서 국내에 대사면령을 내리었는데 그 교서는 다음과 같다. ... 삼가 생각하건대 대왕(견훤)의 신령스런 무예는 못 사람을 훨씬 뛰어 넘었으며, 영특한 피는 옛날에 비추어도 우뚝하였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라고 하여, 견훤 뿐 아니라 아들 신검까지도 大王을 자칭하였다.

견훤이 ‘都統甄萱’이라 칭한 것으로 보면 견훤 스스로 신라의 지방관을 자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한다.⁹²⁾ 그러나 929년 대마도에 표류한 후백제인을 全州에 데려다 주고 귀환한 秦滋景은 “全州王 甄萱이 數十州를 討併하여 大王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⁹³⁾ 또한 929년 5월 견훤의 사자 張彥澄 등 20인이 대마도에 來着하여 大宰府府司에 書狀과 信物을 보내 對馬守 坂上經國에게 國書와 信物을 보내어 大宰府로 향할 것을 요청하면서 “本國의 왕은 일본에 入覲하고 싶은 깊은 사려를 가지고 있으며 거듭 사자를 보내 신물을 드리는 노고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⁹⁴⁾ 견훤은 대내외적으로 ‘왕’을 자칭하고 있었다.

90) 조범환, 「高麗 太祖 王建의 對新羅政策」 『古文化』55, 2000, 118쪽; 신성재, 『궁예정권의 군사정책과 후삼국전쟁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8~159쪽; 丁善溶, 「고려 태조의 대신라정책 수립과 그 성격」 『한국중세사연구』27, 2009, 153~154쪽.

91) 『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92) 신호철, 「후백제」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22쪽.

93) 『扶桑略記』권24, 醍醐天皇 下, 延長 7년

94) 이에 대해서는 야마사키 마사토시, 「견훤정권과 일본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35, 2004 참고.

포석정 사건은 대단히 폭압적 방식으로 신라 지배층에 대한 반발심을 표출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후백제군이 포석정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함으로써 민심을 잃게 되었다고 보았다.⁹⁵⁾ 그러나 견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몰락 농민과 옛 백제 지역의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⁹⁶⁾ 이 시기 많은 농민봉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왕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었다. 후삼국 통일을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민심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견훤이 민심이 이탈하는 행동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⁹⁷⁾

견훤은 “위태롭게 된 나라를 다시 세우니, 없어진 임금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여, 왕실교대⁹⁸⁾를 통해 신라의 민심도 자신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의 즉위에 대해 왕실 뿐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라 내부의 반발이 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태봉의 궁예도 신라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K-① 일찍이 남쪽을 순행할 때 홍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화에 신라왕의 초상이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그것을 쳤는데, 그 칼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 …… 善宗은 자기의 강대한 기세를 믿고 (신라를) 병탄하려 하였다. 국민들로 하여금 신라를 滅都라고 부르게 하고, 신라에서 오는 자는 모두 죽였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95) 김철준,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368쪽; 김갑동, 앞의 책, 2010, 88~93쪽; 류영철, 앞의 책, 173쪽.

96) 문경현은 포석정 사건으로 견훤은 백제의 원수를 갚고 민심의 숙원을 풀고 친고려 신라 정권을 타도하고 고려와 신라의 연합에 썩기를 박았으나, 신라의 민심이 이반되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문경현, 앞의 책, 1987, 60쪽).

97) 김철준은 견훤을 사대 수습에는 민활하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이렇다할 경륜을 못가졌다고 평가하였다(김철준, 앞의 책, 1990, 365쪽).

98) 노태돈은 왕실의 혈통이 바뀌었지만, 국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왕실교대라고 하였다(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449쪽).

열전 궁예).

K-② 그때 궁예는 영토가 더욱 넓어지고 군대가 점점 강하여졌다 하여 신라를 병탄할 뜻을 품고 신라를 滅都라고 불렀으며 신라로부터 항복해 오는 자들을 다 죽였다(『고려사』권1, 태조 天祐 3년(906) 병인).

궁예가 포석정을 습격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궁예의 이러한 행위를 개인적 출생의 원한으로 보기도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궁예가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건국 이념과 자신의 지지 기반의 이해를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본다.⁹⁹⁾

후삼국 전쟁 중 오어곡성이 후백제군에 의해 함락되고 장군 양길과 명식 등 6명이 항복하자 왕건은 군사들을 毬庭에 모아 놓고 6명의 처자들을 그 앞에서 소리 돌리고 저자에서 사형에 처하였다.¹⁰⁰⁾ 왕건 또한 후백제에 항복한 장군의 가족들에게 잔혹하게 보복을 가하였다. 이들의 정치활동과 이념은 자신의 출생이나 개인적인 원한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건은 신라를 병합할 마음이 없었을까? 견훤은 이를 의심하였다. 927년 12월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를 다시 보자.

L-① 지난번에 신라의 國相 金雄廉 등이 장차 足下를 서울로 불러들이려 했소. 이는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소리에 호응함과 같고, 종달새가 매의 날개를 찢으려 함이었으니(鸚披隼翼),¹⁰¹⁾ 반드시 신라

99) 정청주는 궁예가 부석사에 있는 신라왕의 초상을 칼로 베어버렸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세력, 특히 반신라(왕실)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계스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정청주, 『신라말고려초 호족연구』, 69쪽 각주 16).

100) 『고려사』권1, 태조 11년 11월

101) ‘鸚披隼翼’을 종달새가 날개를 헤친 것을 보고 새매의 날개로 착각한 것으로, 이는 매의 날개 속에 종달새가 헤치고 들어감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는 것과 같아서 우선은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피해를 본다는 뜻

와 고려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종묘와 사직을 폐허로 만들게 했을 것이오. 나는 이로써 먼저 祖述의 채찍을 잡고 홀로 韓禽虎의 斧鉞을 휘두르며, 백관에게 백일처럼 맹세하고 六部를 義風으로써 說諭했는데, 뜻밖에 간신은 도망하고 邦君은 薨變을 당하였소. 마침내 경명왕의 表弟이며 헌강왕의 외손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여 위태롭게 된 나라를 다시 세우니 없어진 임금이 있게 되었소(『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 L-② 이때 신라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대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리 태조와 우호 관계를 맺어 서로 도울 것을 상의하고 있었다. 견훤은 내심으로 나라를 빼앗을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태조가 먼저 성공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王都에 들어가서 횡포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¹⁰²⁾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 원인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고려의 세력 확대에 대한 현실 타개의 방편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¹⁰³⁾ 직접적으로는 신라 경애왕의 친고려 정책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¹⁰⁴⁾ “지난번에 신라의 國相 金雄廉 등이 장차 足下를 서울로 불러들이려 했다”라고 하거나, “이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 4』, 1997, 830쪽).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신라가 고려의 군사적 원조를 받지만 결국 고려가 신라를 병합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 102) 『동사강목』에서도 왕실이 쇠약해지자 견훤은 고려가 먼저 침입할까 두려워 하여 9월에 곧 군사를 동원하여 고려의 근품성을 쳐서 불사르고 입구하여 고을부에 이르러 서울근교에 육박하였다고 하였다(『동사강목』권5, 경순왕 원년 9월).
- 103) 류영철, 앞의 책, 2005, 91쪽; 정요근, 「후삼국기 고려의 남방진출로 분석」 『한국문화』44, 2008, 24쪽.
- 104) 文暉鉉, 『新羅史研究』, 경북대학교출판부, 1983, 338쪽; 신형식, 「개요」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5쪽; 신호철, 「후백제」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7쪽; 金哲堧, 앞의 책, 1990, 362쪽; 전기웅, 앞의 책, 2010, 253쪽.

때 신라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대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리 태조와 우호 관계를 맺어 서로 도울 것을 상의하고 있었다”는 사료는 이러한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⁵⁾

927년 1월에서 3월 사이, 왕건은 직접 출전하여 경북 북부인 용주와 근품성을 점령하고 7월에는 대야성을 함락하였는데, 이곳은 모두 후백제가 선점한 곳이며 신라 왕경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특히 고려의 용주 공격에 경애왕은 신라군을 보내 도왔다. 때문에 “견훤은 내심으로 나라를 빼앗을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태조가 먼저 성공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라는 혐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신라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고려의 군사적 압박에도 벗어나야 했다.¹⁰⁶⁾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요시한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필자는 후삼국 건국자들이 모두 신라를 병합하고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¹⁰⁷⁾ 왕건이 신라를 병합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 사료에서 드러난다.

M-① 어느날 태조가 崔凝에게 말하였다. “옛날에 신라가 9층탑을 만들

105) 왕건의 이러한 호의적 태도는 기울어져가는 신라왕조의 보호자로 나섬으로써 그 통치배들로 하여금 고려에 더욱 의존하게 하려는 책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은택, 『고려태조 왕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96쪽).

106) 曹凡煥은 왕건이 견훤처럼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공격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는 군사적 행동은 삼가고, 외곽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신라 왕실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보았다(조범환, 앞의 논문, 2000, 119쪽).

107) 신성제는 신라를 적대국으로 대하는 태도는 궁예와 왕건, 견훤을 포함한 후삼국 건국자들이 전쟁을 수단으로 신라를 해체하여 자국 중심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이 시대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하였다(신성제, 『궁예정권의 군사정책과 후삼국전쟁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8쪽).

고 드디어 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이제 개경에 7층탑을 건조하고 서경에 9층탑을 건축하여 현묘한 공덕을 빌어 여러 악당들을 제거하고 삼한을 통일하려 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발원문을 만들라”고 하였다. 그래서 최응은 그 글을 지어 바쳤다(『고려사』 권92, 열전 최응).

M-② 훗날 고려왕이 신라 정벌을 꾀하다가(高麗王 將謀伐羅) 말하였다. “신라에는 세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황룡사의 장륙존상이 하나요, 그 절의 9층탑이 둘이요,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셋입니다”. 이에 (고려왕은) 그 계획을 멈추었다(『삼국유사』권1, 天賜玉帶).

M-③ 처음에 신라의 사신 김률이 왔을 때 왕이 묻기를, “들으니 신라에 세 가지 큰 보물이 있다는데 장육금상과 9층탑과 聖帝帶라고 하였다. 삼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하니(三寶未亡 國亦未亡) 탑과 상은 아직 남아있거니와 성대가 지금도 아직 있소?”라고 하였다. 김률이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성대를 들어 본 적이 없사옵니다”고 하였다. 왕이 웃으며 말하길, “경은 귀한 신하인데 어찌하여 나라의 큰 보물을 모른단 말시오?”라고 하니, 김률이 부끄러이 여기고 돌아와 그의 왕에게 아뢰었다(『고려사』권2, 태조20년 5월).

사료 M-①에서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개경에 7층탑, 서경에 9층탑을 세우려 하면서 최응에게 발원문을 만들 것을 명하였다. 사료 M-②③은 후백제의 침입을 받고 구원 요청을 위해 고려에 온 신라 사신 김률에게 왕건이 신라 삼보에 대해 물었던 내용이다. 高麗王 將謀伐羅(M-②)라고 하거나, 三寶未亡 國亦未亡(M-③)라고 하여, 왕건의 신라 병합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王昌瑾의 古鏡에 나타난 참언을 해석하여, “먼저 닭을 잡고 후에 오리를 잡는다는 것은 파진찬 시중(왕건)이 먼저 계림을 얻고 후에 압록을 수복한다는 뜻이다”¹⁰⁸⁾라고 한 것에서도 왕건의 신

108) 『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궁예

라 병합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후백제의 침입을 받고 구원 요청을 위해 고려에 온 신라 사신 김를에게 왕건이 삼보에 대해 물었던 것은 920년(신라 경명왕 4년, 고려 태조 3년) 10월이었다. 왕건은 후백제와 대립을 각오하고 원군을 보냈고,¹⁰⁹⁾ 이를 예상 못한 후백제군은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때 견훤은 왕건에게 강한 의심과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928년까지 후백제는 전주에서 대구-영천을 거쳐 경주로 갈 수 있는 동서로를 뚫었고, 진주-함천-군위-의성-안동의 남북로를 확보하여, 언제든지 신라를 직공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였다.¹¹⁰⁾ 후백제군은 927년 포석정 습격을 통해 신라에 친후백제 정권을 세웠으며, 민심을 잃은 신라 왕실을 교체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에 대한 호응에 부응하여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후삼국 통일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후백제군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은 진성여왕대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자였던 김효종의 아들로, 당시 박씨로 알려진 왕실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경순왕의 대외 정책이 친백제적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고, 수 많은 인질까지 잡혀 간 상황에서도 경순왕의 대외정책은 시세에 따라 달라졌다. 930년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대승을 거둔 사실을 신라에 알리자, 경순왕은 왕건을 만나기를 청했다.¹¹¹⁾ 그러나 왕건은 신라의 왕경으로 가지 않고 呢於鎭¹¹²⁾에 들러 북미질부와 남미질부 성주의 내투를 받았다.¹¹³⁾ 이

109) ‘이때부터 (후백제와) 우리와 틈이 생겼다’(『고려사』권1, 태조 3년 10월)라고 할만큼, 고려의 대외정책이 변화하였다.

110) 김갑동, 앞의 책, 2010, 49쪽.

111) 『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4년 2월

112) 태조 13년(930) 2월에 呢於鎭에 성을 쌓고 이름을 神光鎭으로 고치고 백성을 옮겨 채웠다(『고려사』권82, 鎭戍). 오늘날의 포항시 신광면 일대로 추정되는

제 신라 왕경은 927년 11월의 경우처럼 고려군의 군사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다시 경주를 방문해 줄 것을 청했고, 이에 왕건은 신라 경순왕 5년(931) 2월에 경주를 방문하였다.

N-① 2월 태조가 50여명의 기병을 이끌고 서울 부근에 와서 뵈기를 청했으므로 왕은 교외로 모든 관리들과 함께 나가 맞이하였다. 대궐로 들어와 情과 禮를 다했으며 임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 수십일 머물다 돌아가니 왕은 穴城에까지 나가 진송하고 堂弟인 裕廉을 인질로 삼아 태조를 따라가게 했다(『삼국사기』권12, 신라 본기12, 경순왕 5년 2월).¹¹⁴⁾

N-② 신해일에 왕이 신라에 갔다 …… 여름 5월 정축일에 왕이 신라왕과 태후인 竹房夫人, 相國 裕廉, 匠干 禮文, 波珍粲 策宮·尹儒, 韓粲 策直·昕直·義卿·讓餘·寬封·含宜·熙吉 등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계미일에 왕이 돌아 오는데 신라왕이 혈성까지 나와서 진송하고 유림을 인질로 삼아 왕을 수종케 하였다(『고려사』권2, 태조 14년 2월~5월).

『삼국사기』에는 왕건이 신라 왕도에서 수십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으나, 『고려사』에는 2월 후훗일에서 5월 쫓未일까지 3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하였다. 이 긴 시간 동안 신라 왕경에서 왕건이 머물면서 신라왕과 신료들에게 상을 주고 인질을 잡아 간 것은 점령군의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왕건이 정통성을 가진 신라왕에게 선물을 한 것은 더 이상 신라의 신하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⁵⁾

신광진은 신라 왕경 바로 바깥에 있었다.

113) 『고려사』권1, 태조 13년 2월 경자

114) 『삼국유사』권2, 김부대왕 조에는 사료 N의 일이 포석정 사건의 明年 戊子 즉 928년 3월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오류이다.

사료N에서 신라가 왕의 당제 유림을 인질로 고려에 보낸 것은 고려 측의 요구에 응한 것이며, 신라가 더 이상 견훤 정권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¹¹⁶⁾ 이때 고려에 인질로 간 유림은 경순왕의 당제였을 뿐 아니라 신라의 相國이었다. 또한 고려는 신라 왕경 주변에 군대를 주둔시켜 신라를 압박하였다.

또 이듬해에 征南大將軍으로 임명되어 의성부를 지켰는데 태조가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나는 신라가 백제의 침공을 받을까 염려하여 일찍이 大匡 能丈 英周 烈弓 應希 등을 파견하여 진수하게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백제 군대가 벌써 樞山城, 阿弗鎭 등지에 이르러 사람과 재물을 겁탈한다 하니 신라 서울에까지 침범할까 우려된다. 그대는 마땅히 가서 구원하라”고 하였다. 유급필이 장사 80명을 선발 인솔하고 갔다(『고려사』권92, 열전 유급필).

위의 사료는 933년 당시 고려가 의성부 뿐 아니라 신라 여러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삼국시기 태봉과 후백제, 고려의 건국자들은 모두 신라를 병합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처하는 경순왕의 대외 정책은 정세에 따라 변화하였다.¹¹⁷⁾ 후백제나 고려 모두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압박하였고, 인질을 잡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권을 세우는 전략을 같았으나,¹¹⁸⁾ 주변 정세의 변화에

115) 조범환, 앞의 논문, 2000, 120쪽.

116) 신호철, 앞의 논문. 1989, 38쪽; 曹凡煥, 「新羅末 敬順王의 高麗歸附」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4, 415쪽.

117) 김영미은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오른 경순왕이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서 양 세력을 저울질하며 나라를 유지하려 했으므로, 고려는 신라에 대해서도 호의적 감정으로 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김영미, 「羅末麗初 崔彦撫의 現實認識」 『史學研究』50, 1995, 166쪽).

118) 예를 들면 925년 10월에 고을부 장군 능문이 고려에 귀부해 왔을 때 왕건은 그 성이 신라 왕도와 가까워서 그를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휘하의 시랑 배근

따라 전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한 이유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¹¹⁹⁾ 신라의 태자는 고려에 대해서도 싸워야 할 것을 분명히 주장하였으며,¹²⁰⁾ 경순왕의 논리대로라면 후백제가 힘이 세었다면 그쪽으로 투항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결국 경순왕의 투항 이유는 후백제와 고려의 대신라 정책보다는 힘이 센 곳에 항복한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며,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935년 6월 견훤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4개월 후인 935년 10월에 신라 경순왕도 고려의 개경으로 항복하러 떠났다. 후백제로 끌려간 수많은 인질의 안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¹²¹⁾ 927년 견훤에 의해 약탈당한 후 남은 창고의 진귀한 보석과 무기를 30리에 걸쳐 향거에 싣고 개경으로 향했다. 견훤은 자신이 세운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²²⁾

과 대감 명제·상술·궁식 등은 고려에 머물게 하였다(『고려사』권1, 태조 8년 10월). 시세에 따라 반부가 바뀌는 호족에 대한 견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9) 왕이 말하기를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능히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이왕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죄한 백성들로 肝腦를 땅에 바르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다”하고,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태조에게 귀부를 청하게 하였다(『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9년 10월).

120) 왕자는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마땅히 충신과 義士로 더불어 민심을 수합하여 스스로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말 것이니, 어찌 천년 사직을 하루 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줄 것이랴”하였다(『삼국사기』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9년 10월).

121) 926년 후백제로 간 인질 王信은 견훤이 고려에 보낸 인질 眞虎가 죽자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932년 매곡성 성주 曺直이 고려에 귀부하자 견훤은 심히 노하여 인질로 있던 공직의 아들 直達과 金舒 및 그 딸을 잡아 가두고 단근질하여 股筋을 끊어 죽였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열전 견훤; 『고려사』권92 열전 공직).

V. 맺음말

후백제군이 고을부까지 쳐들어 왔는데도 신라의 왕과 왕실, 신료들이 포석정으로 행차한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곳을 잘못 판단한 행동이었다. 그렇다고 신라 멸망의 책임을 경애왕의 도덕심과 포석정 향락에 돌리는 것은 지엽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포석정 사건에 대한 역사 해석의 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는 나라의 위기를 호국신에게 빌어 도움을 얻으려는 당시 시대 의식의 한계이지, 경애왕 개인의 향락이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 의례는 단순히 종교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형태로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¹²³⁾

수세적 방어에 있던 고려는 927년 1월 용주를 공격함으로써 공세로 전환하였다. 927년에 벌어진 전투는 왕건과 견훤이 직접 공격에 나설 만큼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전면전이였다. 927년 9월에 후백제군은 근암성을 재탈환하고 고을부로 진출하였다. 경애왕은 “탑을 세운 뒤에 八關會를 열고 죄인을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外賊不能爲害)”라고 한 호국행사를 위해 비빔과 종척, 신료까지 대동하고 포석정에 행차하였다.

후백제군은 경애왕을 포로로 잡기 위해 신라 왕궁이 아닌 포석정을 습격하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후백제군이 경애왕이 그때 포석정에 행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출신으로 왕경에 종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경 주변의 군사 시설과 지리에 익숙하였다. 또한 연례적으로 거행한 세시명절이었기에 이때 왕의 일정은 거의 공개되어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후백제군은 신속한 군사작전으로 포

122) 신호철, 앞의 논문, 1989, 39~40쪽.

123) 안지원, 앞의 책, 2011, 13쪽.

석정에서 경애왕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다.

후삼국 시기 건국자들은 모두 신라를 병합하고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궁예는 신라를 병탄할 생각을 품고 멀도라고 불렀으며, 견훤은 내심으로 나라를 빼앗을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왕건이 먼저 성공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으며, 왕건도 견훤의 이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포석정 사건은 후백제군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진행되었고, 견훤은 경애왕을 제거하고 김부를 옹립할 계획을 가지고 신라 왕경을 점령하였다.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고, 수많은 인질이 후백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경애왕의 대외정책은 후삼국의 정세에 따라 변화하였다. 때문에 견훤이나 왕건 모두 인질을 잡고 군사적 압박을 통해 신라를 병합하려 하였다.

경애왕의 포석정 행차를 개인적인 오락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후백제군이 포석정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인 것을 견훤 개인의 성격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927년 11월 포석정에서의 후백제군의 행동은 견훤이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건국이념과 자신의 지지 기반의 정치적 이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진다.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에 대해 신라 내부의 반발이 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약탈과 급습의 이미지로 포장된 포석정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참고 문헌】

1. 저서

-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柳原書店, 194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문경현,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연구』, 형설출판사, 1987.
- 김철준,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일조각, 1993.
- 김은택, 『고려태조 왕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일조각, 1996.
- 홍승기 편,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일조각, 1997.
- 백제연구소 편, 『후백제와 건훤』, 서경문화사, 2000.
-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후백제 건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 류영철, 『고려의 후삼국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05.
- 신성재, 『궁예정권의 군사정책과 후삼국전쟁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2010.
- 丁善溶, 『高麗太祖의 新羅政策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연구』, 혜안, 2011.
- 안지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 연구 논문

- 安啓賢, 「八關會放」 『동국사학』4, 1956.
-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 金皓東, 「崔殷舍-承老 家門에 관한 研究」 『嶠南史學』2, 1986.

- 최근, 「팔관회에 대한 간단한 고찰」 『력사과학』1987년 2호, 1987.
- 申虎澈, 「新羅의 滅亡과 甄萱」 『忠北史學』2, 1989.
- 曹凡煥,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역사학보』129, 1991.
- 文秀鎭, 「王建의 高麗建國과 後三國統一」 『국사관논총』35, 1992.
- 朴方龍, 「新羅王都의 守備」 『신라문화』9, 1992.
-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4·5합, 1993.
- 曹凡煥, 「新羅末 敬順王의 高麗歸附」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4.
- 신호철, 「후백제」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음선혁,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귀부의 정치적 성격」 『전남사학』11, 1997.
- 奎德在, 「新羅 下代 眞의 설치와 성격」 『軍史』35, 1997.
- 김수태, 「후백제 견훤정권의 성립과 농민」 『백제연구』29, 1999.
-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15, 1999.
- 김혜숙, 「高麗 八關會의 內容과 機能」 『역사민속학』9, 1999.
- 邊東明,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90, 2000.
- 조범환, 「高麗 太祖 王建의 對新羅政策」 『古文化』55, 2000.
- 蔡尙植, 「신라사에 있어서 황룡사의 위상과 그 추이」 『황룡사의 종합적 고찰』(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22), 2001.
- 韓基汶,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27, 2003.
- 한정훈, 「신라통일기 육상교통과 五通」 『釜大史學』27, 2003.
- 야마사키 마사토시, 「견훤정권과 일본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35, 2004.
-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83, 2006.
- 이용현, 「안압지와 東宮 庖典」 『신라문화연구』1, 2007.
- 서성희·권영오, 「重修龍門寺記에 나타난 醴泉 龍門寺의 寺格 變化」 『지역과 역사』22, 2008.
- 정요근, 「後三國時期 高麗의 남방진출로 분석」 『韓國文化』44, 2008.

Abstract

Attack on the P'osŏk-chong by the Later Paekche army and the Enthroning of the King Kyŏngsun.

Kwon, Young-oh

In 927, Koryeo(高麗) attacked Yongju(龍州) in January, the Kunam Fortress(近巖城) in March, and the Taeya Fortress(大耶城) in July. After, Later Paekche(後百濟) counterattacked Koryeo, and retook the Kunam Fortress in September and invaded Koul-bu(高鬱府).

In such a situation, in November 927, King Kyŏnggae(景哀王) marched to P'osŏk-chong(鮑石亭) with the King's Queen and court ladies, the royal relatives and the prominent officials in order to have the national event. It was because he thought that if he held the Palgwan-hoe(八關會) and set the prisoners free after erecting a tower, the foreign enemies could not do harm.

Being from Sangju(尙州) and having been a soldier of the Shilla royal capital city, Kyŏnhwon(甄萱) was very familiar with the geography of the capital city in Shilla and was able to invade from Koul-bu to P'osŏk-chong directly.

Because the event was celebrated as a seasonal holiday every year, Later Paekchae army that could easily know the circumstances towards the king carried out the military operations to catch King Kyŏnggae as a prisoner in P'osŏk-chong(鮑石亭).

When taking over the capital city, Kyŏnhwon planned to eliminate King

Kyōngae and enthrone King Kyōngsun(敬順王). Thus the new King was enthroned by Kyōnhwon, and even though so many people were taken hostages in Later Paekche(後百濟), the foreign policy of King Kyōngsun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Later Three Kingdoms(後三國).

It is not pertinent to regard the event of King Kyōngsun(敬順王) in P'osök-chong(鮑石亭) as a moral gangrene or consider the situation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Shilla Dynasty.

Also, instead of blaming Kyōnhwon for the P'osök-chong attack, it can be seen as a political action to establish Later Paekche and to understand its supporters.

Key Words : Later Paekche(후백제), King Kyōngae(경애왕), King Kyōngsun(경순왕), Kyōnhwon(견훤), Wangkōn(왕건), P'osök-chong(포석정)

논문 투고일 : 2013. 3. 29
 게재 확정일 : 2013. 4. 29

심사 완료일 : 2013. 4. 29